

보도시점

배포 후 즉시 사용

배포

2024. 11. 19.(화)

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2개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

- 「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」 제4차 선정 결과 11개소 추가 참여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1월 19일(화) 「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」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(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,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,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, 계명대동산병원, 대구가톨릭대병원, 동아대병원, 삼성창원병원, 서울대병원, 양산부산대병원, 전남대병원, 충북대병원)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

- * ▲ 병상감축 계획, ▲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(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),
▲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"선정자문단 심의"를 거쳐 선정

이번 선정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,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%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.

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, 소아·고위험분만·응급 등 유지·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,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여 규모·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‘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’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.

참여 상급종합병원은 ▲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, ▲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·응급·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, ▲전공의에게는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여 임상과 수련, 연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.

아직 참여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도 준비가 되는 대로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청 상황을 보면서 선정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.

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“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·응급·희귀질환 중심,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”라며, “바람직한 변화가 차질없이 이어져 상생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 참고 : 선정기관 구조전환 주요 사례 >

① 중증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강화

< 11개 병원 일반병상 감축 현황 >

- 서울대병원 1,541 → 1,354병상 (187병상 감축) / ■ 서울성모 1,121 → 1,010병상 (111병상 감축)
- 양산부산대 1,027 → 969병상 (58병상 감축) / ■ 전남대병원 874 → 839병상 (35병상 감축)
- 동아대병원 872 → 830병상 (42병상 감축) / ■ 계명대동산 843 → 801병상 (42병상 감축)
- 대구가톨릭 757 → 709병상 (48병상 감축) / ■ 성빈센트 720 → 649병상 (71병상 감축)
- 인천성모 688 → 620병상 (68병상 감축) / ■ 삼성창원 670 → 626병상 (44병상 감축)
- 충북대병원 644 → 616병상 (28병상 감축)

<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 >

- 【A병원】** [인프라] ▲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증설, ▲응급환자 전용 입원실, 수술실 활용한 진료체계 강화, [운영체계] ▲중증외상 전담팀 운영하며 치료에서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제공, ▲당직 진료과 확대운영 통해 응급의료 당직체계 개선
- 【B병원】** [인프라] ▲고위험산모 전용 병상 및 분만실 확보, [운영체계] ▲협력병원 간 고위험산모 신속 이송시스템 구축 및 전용 핫라인 운영, ▲심뇌혈관질환 환자 이송시스템 강화 및 24시간 전문의 당직체계 운영
- 【C병원】** [인프라] ▲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병상 신설, ▲필수의료분야 중환자실 증설, [운영체계] ▲심장·대동맥질환 24시간 이내 수술·시술 패스트트랙 구축, ▲중증외상환자 다학제 협진 및 검사·수술 패스트트랙 운영
- 【D병원】** [인프라] ▲응급환자 시술대기 및 시술 후 관찰 위한 준중환자실 구축, [운영체계] ▲중증 및 경중환자별 응급진료 프로세스 구축, ▲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 내·외과 협력 진료 체계 및 임상진료지침 운영

② 단순 환자 의뢰회송에서 벗어나 질적인 진료협력체계 강화

< 강화된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>

- 【A병원】 ▲진료협력병원 대상 전문의뢰·회송 교육홍보 및 피드백, ▲진료예약 프로그램 내 전문 의뢰환자 전용 전산구축, ▲전문의뢰환자 진료종료 시, 회송 기준 및 프로세스에 따라 적합 기관으로 회송
- 【B병원】 ▲전문의뢰환자 및 회송환자 증상 악화 시, 신속진료 위한 전용 예약시간 운영, ▲전산 시스템 고도화 작업(영상정보, 검사결과 공유), ▲의뢰 환자 현황 파악, 환자 증상 변화 재의뢰 요청 시 빠른 처리 안내
- 【C병원】 ▲진료과별 외래진료 패스트트랙 운영, ▲응급의학과 핫라인을 통한 중증응급환자 24시간 패스트트랙 운영, ▲진료협력 소통 강화를 위한 분기별 진료협력 운영위원회 운영
- 【D병원】 ▲중증·응급환자를 위한 진료과별 핫라인 운영, ▲패스트트랙 환자 신속진료를 위한 알림 기능 구축, ▲중증 응급환자의 경우 전문의 직접 연결
- 【E병원】 ▲외래 당일 진료·검사 위한 협조체계 구축, ▲암환자 신속진료시스템 구축 및 다학제 협진 제공

③ 팀 기반의 업무재설계 ⇨ 보다 효율적인 인력 운용체계 구축 인력의 감축 없는 안정적 운영, 교육훈련 등 통한 처우 개선

< 중증·응급·희귀질환 중심 인력 운영을 위한 계획 >

- 【A병원】 ▲진료부원장 산하 중환자진료지원팀 운영, ▲각 진료과와 연계한 분야별 전담 진료지원팀 구성·운영 확대, ▲감축 없는 인력운영으로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, ▲전문간호사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비 지원
- 【B병원】 ▲중증, 응급, 소아, 희귀질환 진료과에 진료지원간호사 최대 100% 증원, ▲24시간 진료지원을 위한 통합 진료지원간호사 배치, ▲진료지원간호사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문화된 진료체계 구축
- 【C병원】 ▲기존인력을 진료지원간호사로 전환 및 필수의료분야 재배치, ▲전문의 + 진료지원 간호사 팀구성과 공통 술기 관련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진료지원 간호사 배치, ▲TFT 구성하여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설정, ▲긴급수술이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on call system 구축(진료팀 24시간 대기), ▲진료지원 간호사 대상 실무중심의 이론 및 술기교육 제공

④ 수련 기능 강화를 통해 임상과 수련의 균형적 발전 도모 전공의가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

<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계획 >

- 【A병원】** ▲전공의 전용 업무 공간 확충, ▲연차별 전공의 수련프로그램 세분화, ▲학술대회 및 콘퍼런스 등 참석지원, ▲의학시뮬레이션 센터를 통한 임상술기 실습 및 교육 콘텐츠 개발, ▲전공의 교육위원회 운영으로 지도전문의 역할 수립 및 관리, ▲전문의-전공의 간 집중교육 및 관리·감독
- 【B병원】** ▲당직실 추가 배치 및 전용 오피스 설치, ▲정신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심리검사 제공, ▲멘토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수련교육지도, ▲술기훈련을 위한 교육시설 구축, ▲고난도 술기의 학습 기회 제공 등으로 질높은 수련 프로그램 시행, ▲지역 네트워크 수련 도입

담당 부서 (총괄)	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	책임자	과 장	유정민 (044-202-1870)
		담당자	사무관	성경은 (044-202-1873)
(보상)	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	책임자	과 장	정성훈 (044-202-27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규 (044-202-273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